석유화학, 중동의 중국수출 확대로...

전경련, 하반기에도 개선 기대 어려워 ... 전자·반도체는 전망 밝아

2012년 하반기에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산업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6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2012년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로존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둔화와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에 부진했고, 하반기에는 중국의 긴축완화 영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동의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조선산업은 2013년 이후 개선되는 등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고, 해양 플랜트 역시 드릴십 발주가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산업도 하반기에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고, 건설산업은 중동지역의 높은 전력 수요, 중유 발전 증가에 따른 발전·정유·화학 플랜트 건설 덕분에 소폭 개선되지만 국내시장의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공공발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은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반도체산업도 비교적 밝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3>